



상처투성이... 처참한 세월호 23일 오후 공중 촬영한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사고 해역 세월호 인양 장면. 세월호와 잭킹바지선 간 간섭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수면 위 13m 인양을 목표로 신중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2·3·7면 /연합뉴스

민주 현장투표 유출 지역위원장 6명 조사

安·李 캠프 반발 계속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초반부터 위기에 빠졌다. 지난 22일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현장투표의 개표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미확인 자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역별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소상하게 기록돼, 당 안팎에서는 실제 득표 결과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선관위는 2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서 즉각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실 파악을 시작하고 범죠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체 카카오톡에 개표 결과를 올린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23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 대구·경북, 전북 등의 지역위원장 6명은 전남 전국 동시 투표소에서 현장투표가 끝난 뒤 지역위원장 대화방에 각 후보의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를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당은 이들을 상대로 개표 결과를 집계해 카카오톡에 올린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각 캠프의 반발은 계속됐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관계자는 “재발방지에는 당연하고, 문제는 지금 이미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어떻게 수수할 것인지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서도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홍재형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현장투표 무효화’ 의견도 나왔지만 세 주자 캠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전국 동시 투표소 투표에 이어 25~26일 호남권 ARS 투표와 함께 27일 광주·전남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대의원과 당직자 1900명이 참가하는 순회투표를 실시해 이날 오후 첫 호남권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팔도유람-엘로우 시티 장식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왜 3년이나 걸렸나...” 팽목항 피맺힌 절규

9명 미수습자 가족들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오열
추모객들 “최순실·이재용 아이였다면 방치했을까” 울분
세월호 선체 13m까지 인양해 잭킹바지선에 고박 예정

‘세월호 인양’ 진도 팽목항 르포

1073일의 기다림 끝에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이번엔 멈출 수 있을까?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과 가족을 기다리던 미수습자 가족은 지난 22일 지친 몸을 이끌고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이튿날인 23일 새벽, 승객 304명과 함께 바다속으로 자취를 감춘 세월호가 참사 1073일만에 물 위로 떠올랐다. 긴장 속에 밤새 작업현장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 7명은 붉게 녹슨 세월호가 떠오르자 “제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라며 주저앉아 오열했다. 세월호 우측 선체가 수면 위로 보이자 진도에서 350km가 넘는 경기도 안성에서 미수습자인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의 어머니 남상숙(84)씨가 작은아들 양승찬(57)씨와 함께 23일 새벽 6시 팽목항으로 향했다.

낮 12시에 팽목항에 도착한 남씨는 작은 목소리로 “승진아, 승진아 엄마 왔다”를 되뇌이며 방파제로 발길을 향했다. 남씨는 눈앞에 설치된 플래카드에 새겨진 그리운 아들 사진을 아무만진 뒤 자신의 얼굴을 사진에 파묻으며 목놓아 울었다. 세월호 선체가 물 위로 올라오자 팽목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구에서 내려온 양다경(여·40)씨는 “대구에서 광주를 거쳐 진도까지 버스 타고 왔다. 이번 세월호 인양을 보고 있으면 어른으로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든다”며 “과연 정부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나 이재용의 아이였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인양을 방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서울에서 팽목항을 찾은 정은(52)씨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시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3년 동안 인양을 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당하자마자 바로 인양되는 게 허탈하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면 위로 8.5m가 올라왔다. 세월호는 이날 오후 2시 수면 6m 위까지 오른 뒤 3시간 동안 2.5m 오르는 데 그쳤다. 해수부가 목표로 잡은 높이인 ‘수면 위 13m’의 절반 이상 공정을 진행했지만 본 인양 초기보다는 속도가 떨어진 상태다. 해수부는 “세월호와 잭킹바지선 간 간섭하는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양 속도가 줄어든 것은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지선 인양줄에 세월호 선체가 닿는 간섭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60개 인양줄의 장력을 미세 조정하면서 선체의 자세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다. 해수부는 당초 세월호를 13m까지 인양하는 작업을 이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소조기가 끝나고 중조기로 넘어가면서 조류가 빨라져 그 전까지는 13m 인양 및 고박 작업을 마쳐야 한다. /진도 팽목항=김현영기자 young@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서 결판

‘선택 2017’ 대선 D-46

내일 DJ센터 등서 현장투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이 오는 25일 ‘야권의 심장부’이자, 국민의당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시작된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은 처음으로 치러지는 광주·전남, 제주 경선이 사실상 향후 경선 판도를 결정지을 승부처로 보고 막판 조직력 다지기와 바다 민심을 잡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열리는 광주·전남·제주 경선 투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각 시·군·구의 30개 현장투표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단 없이 투표소에 오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경선 투표가 ‘조직 동원’ 싸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선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연설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열린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기호순), 박주선 국회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후보자들은 경선 전날인 24일 저녁 9시 KBC 방송국에서 토론을 벌이며, 토론회 방송은 경선일인 25일 오전 7시40분과 8시40분에 KBC 광주방송과 JTV 전주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거점별로 개표를 한 뒤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개표 결과는 밤 9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어 ▲26일 전북 ▲28일 부산·울산·경남 ▲30일 대구·경북·강원 ▲4월1일 경기 ▲4월2일 서울·인천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 순으로 경선을 진행한다. 아울러 4월3일~4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뒤 경선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4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 후보가 50%를 넘지 못해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최종 후보는 6일 확정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속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비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비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비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규정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000ml 이상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